

목포 잇단 산업단지 개발... 지역경제 활기

세라믹·대양산단 등 첨단산업 중심 산업구조 개편

시,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혜택 투자촉진지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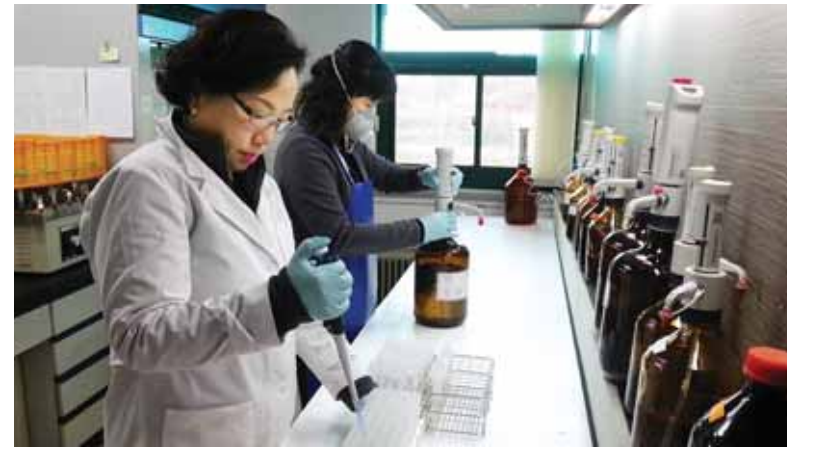
목포시가 2013년 세라믹산단, 2015년 대양산단 준공 및 분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한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육성할 방침이다. 기존 농어업 생산물 유통이나 단순 제조판매업에서 탈피해 지역자원과 첨단기술을 응용

한 차별화된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대양동 797번지 일대 156만㎡에 대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까지 토지 1042필지(1170억8300만원), 지장물 407건(153억5100만원) 등 모두 1449건 1324억3400만원의 보상을 대부분 마

무리할 방침이다. 모두 29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양산단과 관련 다음달 공사에 들어가 2015년까지 준공하고,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조선·세라믹·고기농성 수산식품·신재생에너지·해양레저 장비 등 관련 공장과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원재료 및 완제품 수송 물동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2.5km, 390억원)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연산동 618-64 일원에 조성중인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8만920㎡ 가운데 7만5789㎡(16필지) 분양에 나섰다. 현재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약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산단 조성공사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주)비에이치 세미콘 등 12개 업체와 609억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기업 유치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양·세라믹산단 내 입주업체들이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는 신발전지 역특별법에 의한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산단이 준공 이전 100% 분양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투자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입주대상기업 CEO를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함평군 토양검정 조기정착 앞장

친환경농업 늘면서 작년 9190건...매년 증가 추세

함평군 내 저비용 친환경 실천농가가 늘면서 토양검정(사진)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검정은 작물별로 표준 비료살포량(시비량)을 재배지의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성분을 정밀 분석해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처방해 주는 것이다. 27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782건이었던 토양검정이 2010년 7145건, 2011년 9460건, 지난해 9190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군은 농가 스스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해 적정시비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논·밭 직불제 토양검정, 친환경·GAP 인증이 늘어난 데 따른 검정량 증가도 있지만, 가족농노자의 활용도와 농가 스스로 작물진단 및 저비용 실천을 위해 토양검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도 좀 더 정확하고 빠른 분석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소안도에 '365일 태극기 마을'

'항일의 섬' 완도 소안도에 5번째 '365일 태극기 마을'이 탄생했다. 소안면은 27일 소진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60가구가 동시에 태극기를 다는 365일 태극기 게양식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북암, 이목, 서중, 부상마을 전체 가구가 태극기를 달았다. 인구 3000여 명인 소안도는 20명의 건국훈장 서훈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영합뉴스

진도군 노인 일자리사업 올해 13억 투입

진도군이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

리사업은 읍면과 대한노인회 진도군 9개월로 올해부터 2개월 늘어났으며, 오는 3월부터 시작돼 12월까지 추진된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공분야와 시장형 등 민간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기간은 지난해 7개월에서 9개월로 올해부터 2개월 늘어났으며, 오는 3월부터 시작돼 12월까지 추진된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완도군, 섬지역 '찾아가는 진료' 호응

의료불평등 해소...군외면 사후도서 시작

완도군이 의료 사각지대인 무의도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섬지역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군외면 사후도서로 시작으로 무료 순회진료에 나섰다.

압·혈당 측정 등 기본적인 검사와 진료를 실시하고 침, 건강상담, 투약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진 결과 유질환자나 치료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꾸준히 관리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 및 합병증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외딴섬 주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복지포인트 상품권 구입

전통시장·지역상가 사용

해남군 3억 상당

해남군은 27일 "2013년 복지포인트 전체 금액의 30%(3억원) 이상을 지역상가, 전통상가에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총 금액의 10%인 1억원 상당을 은누리 상품권으로 일괄 구입, 배부한다. 은누리 상품권은 매일시장, 해남읍 5일시장, 북평 남창 5일 시장에서만 전량 사용해야 하는 만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배정된 복지 포인트 가운데 20% 미만 사용자는 내년도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북

전북

순창 미생물관리센터 '성과있네'

창립 1년만에 특허 출원 16건·기술이전 4건

순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가 창립 1년 여만에 16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 4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했다. (재)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센터장 정도연)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R&D(연구개발) 성과보고회를 26일 미생물관리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양주철 기획실장, 허관욱 장류사업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군의 미생물 관련사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발효미생물센터 연구개발 성과 및 향후 R&D 계획 보고를 통한 순창발효산업 육성 의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성과 결과를 토대로 순창 농가 및 제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모두 14개 단위의 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25건의 관련 제품들이 첫 선을 보였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순창군의 미생물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군과 산학연간의 견고한 협력관계는 새로운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기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순창군의 미래 산업인 미생물관련사업의 원천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성과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발표 중주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미생물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강 살리기 네트워크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강 살리기 네트워크는 사회단체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량 살리기 운동을 통해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고창군 제공)

단신

추향장학생 42명 선발...내달 5일까지 접수

지역 인재양성을 선도하고 있는 제 단법인 추향장학재단(이사장 이환주)가 2013년 추향장학생을 다음달 5일까지 접수한다.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매년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추향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962명의 장학생에게 9억9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대학과 신입생 10명(1인당 100만원), 고등학생 30명(1인당 60만원), 특기생 2명(1인당 60만원) 등 4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남원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어야 한다. 특기생은 예능 및 체육 등 특기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으로, 다음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영산강 하구둑과 오희산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남원신도시는 수습만㎡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자연생태축이 단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은 최근 환경부가 공모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6곳 확대

군산시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제증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6곳까지 늘리고 법인인감 무인민원발급기도 1대를 신규 설치할 방침이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나운2동주민센터, 수송동주민센터,

늘푸른도서관,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등 모두 5대가 있으며, 올해 동군산병원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법인인감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에서 전곡 3번째로 작동에 들어간다. /군산=박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인월면 소재지 정비사업 설명회

남원시는 지리산 관문이자 지리산둘레길 중심지에 위치한 인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7일 인월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에게 사전 사업계획설명회를 가졌다.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2016년까지 54억 8000만원을

투자해 시가지 간판정비, 전선 지중화사업, 체육소공원 정비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설 공영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리더 양성,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군, 원예특작물 인프라 구축 47억 지원

순창군이 올해 원예특작 분야에 47억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과 특작분야의 지원예산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생산기반 구축과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해 가공산업과 연계된 다차산업으로 육성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원예 특작분야 65개사업에 만 모두 17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지리산 둘레길 내일 개방

노면 안전상태 등 해빙기 안전사고 점검 마쳐

지리산 둘레길이 새롭게 단장하고 3월1일부터 문을 연다. 서부지방산림청과 사단법인 숲길은 27일 "지리산 둘레길 해빙기 안전사고 점검 등을 마치고 3월 1일부터 이용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면 안전상태, 시설물·안내시스템 점검, 마을주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 응급사항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표지 1200여개를 설치했다. 전 구간에 안전지도, 구조 위치 현황판을 제작해 5개 시·군, 관할

경찰서, 소방서에 배부했다. 올해는 지리산 둘레길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센터별 마을 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주민참여 운영, 현장 모니터링, 안내원 배치 등 탐방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과 사회 약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성찰과 순례의 길'로 가꿀 방침이다.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정보는 사단법인 숲길에 운영하는 홈페이지(www.trail.or.kr/)와 현장 안내센터(구례, 남원, 인월, 산청, 성심원, 하동), 안내소(함양, 산청 중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서울 코엑스에 남원관광 홍보관 운영

내달 3일까지 여행박람회 기간

남원시는 서울 코엑스에서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내나라여행박람회 기간동안 남원관광 홍보관(사진)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내나라 첫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내나라여행박람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고 판촉하는 교류의 장으로 300여개 기관과 여행기획사 및 단체 등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다. 박람회 기간동안 남원시는 홍보관을 통해 국내 최초의 장거리 도보길 지리산 둘레길과 우



리나라 최고의 전통문화축제인 제83회 춘향제를 비롯하여 지리산 배래봉철쭉제, 춘향테마파크 상설공연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수학여행상품,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연계상품 등 다양한 관광종합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